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 살인까지 이어지는 데이트폭력

# 사소한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 필요 전과확인 법안 국회서 '쿨쿨'

#1.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남자친구 A(21)씨가 여자친구 B(21)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 것 같았다는 이유였다.  
#2.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7월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C(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1월 전남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이별 문제로 다투던 D(33)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데이트 폭력 10건 중 1건은 살인 연인 살인범죄자 전과 비율 높아  
美·英 등 애인 전과 공개법 시행**

**결혼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먼저  
어릴 적 부모 싸움·학대 피해자  
폭력 가해자로 '대물림' 악순환  
범죄 개념·신고·인권 교육해야**

사람이 살인으로 뒤집히는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전과 확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폭력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정·데이트 폭력 개념과 적극적인 신고 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인을 상대로 한 살인은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대상 폭력에 관한 연구(2015년)'에서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2014년 살인 범죄 피해자 1만283명 중 연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10.3%(1059명)였다.

18일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살인사건 중 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이 전체(948건)의 10.7%를 차지했다. 연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는 1015명으로 전체(2만4512명)의

4.1%를 차지했다.

특히 연인 살인 범죄자는 초범인 경우가 22.6%인 반면, 전과자 비율은 77.2%에 이르렀다. 연인에게 폭행·상해를 저지른 범죄자 역시 77%가 전과자였다. 초범은 23%에 그쳤다.

◆연인 살해범 전과 비율 77%

연구원이 2015년 심층면접한 50대 중반 E씨는 폭력(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상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전과 9범인 그는 과거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친하게 지나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눈을 멍들게 했다.

또한 E씨는 범행 당일 소주 한 병을 마

신 상태에서, 지방에 있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살라는 말에 '헤어지자'고 대답한 피해자를 청소기로 폭행했다. 그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때려, 부러진 청소기에 허벅지가 찢리는 상해를 입힌 뒤 허벅지를 걷어찼다.

E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

이처럼 애정이 공포로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현재 교제중인 상대의 전과 기록을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원이 2015년 19세 이상 여성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교제 상대방의 전과 조회 허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다. '전적으로 찬성(38.8%)'한다는 의견을 더하면 전체의 86.8%가 데이트 상대의 전과 조회에 동의했다.

◆'애인폭력 전과' 조회·교육 필요

영국에선 남자친구에게 교살된 여성의 이름을 딴 '클레어법'이 2014년 시행됐다. 클레어 우드는 인터넷 연애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 의해 2009년 2월 교살됐다. 며칠 뒤 자살한 가해자는 과거 자신의 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클레어는 살해되기 몇 달 전, 자신

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했고, 살해 위협과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클레어법 시행으로 경찰은 애인의 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폭력 전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2013년 개정된 '캠퍼스 보안 공개법'은 관련 기관이 대학 캠퍼스에서의 범죄발생율을 수집·공개하고, 연간 보안 보고서에 경찰 신고내역을 신도록 한다.

미국은 또한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과 1996년 권총통제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전과자의 범행을 소급해 권총소지를 금지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교육, 주를 따지지 않는 연방차원의 기소 등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10년 미국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1993년에 비해 64% 감소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1993년~2012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이 여성은 26%, 남성은 48% 줄었다.

한국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검사를 경찰에게 가해자의 관련 범죄 경력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의 뿌리는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연인 간 폭력

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6000명(여성 4000명) 가운데 여성 응답자의 상당수(44.2%)가 첫 폭력 피해 시기를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라고 답했다. 결혼 전 교제 기간을 합치면, 폭력 피해 경험은 64.3%에 이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19세 이상 남성 2000명을 조사한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부모 상호간 폭력은 물론, 자신의 폭력 피해가 각각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폭력을 보거나 당한 결과가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의 정의에 영국처럼 데이트 폭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도 가정폭력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관계의 친밀도에 가려진 사소한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학령 초기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 재즈 아티스트 총출동... 자라섬재즈축제

다음달 개막하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는 국내외 24개 팀이 초청돼 최정상급 무대를 선보인다.

행사를 주최한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최종 라인업을 발표했다.

올해로 15회째인 페스티벌에는 국외 14개팀, 국내 10개팀 등 10개국 24개팀이 무대에 오른다.

재즈 피아노의 전설 '칼라 블레이'가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찾는다.

올해 83세로 부드럽고 섬세한 재즈를 통해 풍부한 감성을 보여준다.

'더 블라인드 보이오브 앨라배마'는 1948년 데뷔해 70년간 세계적인 음악인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그래미상을 5번 수상했다. 가스펠뿐만 아니라 재즈,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를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전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재즈 페스티벌은 10월 12~14일 가평읍과 자라섬 일대에서 열린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9일(수)  
음력: 8월 10일

수도권 날씨  
**24~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17 | 해질 / 18:3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취준생에 가장 힘 되는 한마디 “잘하고 있어”

**잡코리아 취준생 763명 대상 설문  
수고했다·힘내·밥 먹자 순**

**취업 떨어졌을 때 위로되는 말  
1위 “그 회사 인재 몰라보네”**

신입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잘하고 있어'로 나타났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763명을 대상으로 '취준생에게 힘이 되는 말'을 조사한 결과 62%가 '잘하고 있어'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수고했다' 45.9% '힘내' 30.7%를 꼽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준생들은 다음으로 ▲밥 먹자 25.3%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23.5% ▲난 널 믿어 22.4%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해낼 수 있어 20.6% ▲사랑한다 16.5% ▲고맙다 15.2% 순으로 꼽았다.

지원한 기업에 불합격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그 회사 사람을 잘못 보네. 인재를 몰라보네' (55.2%, 복



수 응답)이었다.

이어 '더 좋은 곳이 있을거야.' 51.9%, '아직 젊어. 포기하지마' 42.9%, '너랑 맞지 않는 곳이었어' 33.6% 순이었다. 이밖에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20.4% ▲울어도 돼 18.2% ▲시간이 부족했어 11.7% 등의 말이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구직활동으로 힘이 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위로를 해준 인물은 '동성친구

(34.6%)'를 꼽은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님(32.0%)', 이성친구(17.6%), 형제자매(13.2%) 순이었다.

취준생이 마음을 가다듬고 힘 낼 수 있는 명언 30개(경제전문지 포브스 선정) 중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명언으로는 '나는 행운을 굳게 믿는다. 내가 더 열심히 일 할수록 행운이 더 따른다'를 꼽은 취업준비생이 20.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취준생들은 그 다음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18.1%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17.2%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16.1%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사람을 찾아라 15.5% ▲미래는 자신의 꿈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14.8% 순으로 명언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17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

/이범중 기자